

# 한국분석심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

## 초대의 말씀

안녕하십니까?

Carl Gustav Jung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적인 심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. 그리고 종교적인 심성으로부터 자아가 멀어질 때 그 개인은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를 겪게 된다고 하였습니다. 그러므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독교와 영지주의에서의 구원관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심리학적으로 이해해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부디 오셔서 종교적인 심성에 대하여 다 같이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

한국분석심리학회 회장 이문성

- 일시 : 2009년 12월 12일(토) 2:30-6:00
- 장소 : 서울아산중앙병원 동관 6층 세미나실
- 연수평점 : 2점
- 연회비: 정회원 15만원 / 일반회원 및 준회원 8만원
- 등록비: 회원은 연회비로 대체
  - 사전등록 : 30,000원 / 전공의 및 학생 20,000원
  - (사전 등록 기간: 2009 12월 5일 토요일까지)
  - 현장등록 : 40,000원 / 전공의 및 학생 30,000원
- SC 제일은행 623 20 296127 예금주 최영숙

## 한국분석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

주제 : 기독교와 영지주의에서의 구원관과 분석심리학

좌장 이부영 (한국 용 연구원)

2:30~ 3:00 등록

3:00~ 3:10 회장인사

이문성 (백산신경정신과)

3:10~ 4:00 미사에 나타난 구원의 상징성

김정택 (서강대 심리학과)

4:00~ 4:50 영지주의에서의 구원과 분석심리학

김성민 (협성대 신학대학)

4:50~ 5:10 Coffee Break

5:10~ 5:40 지정토론

이죽내 (대동병원)

5:40~ 6: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